

중소기업 해외배송 부담 던다… 최대 60% 할인

중기부,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참여기업 모집… 9일부터 접수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9일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물류비 상시 할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택배 발송건에 대

해 물류사와 단가 협상이 쉽지 않아 물류비 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적함으로써 EMS(우체국 국제특송) 정사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플랫폼 지원 사업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 창고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참여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고, 글로벌 온라인 소싱 플랫폼에 특화된 현지 플랫폼 서비스(아마존 FBA, 소피 SBS 등)의 이용료, 수출

통관 및 신고대행비 등 제반 비용의 70% 내외를 기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물류비용과 복잡한 물류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물류 부담의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에서 호응이 높아 올해 약 1천 3백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수출 물량은 약 306만건으로 EMS 정사가 대비(주요 10개국 기준) 평균 83.4% 할인된 단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 수요를 반영하여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 물류를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기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플랫폼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부와 조치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많은 부담을 갖고있으며, 특히 물류비 부담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동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참가 신청은 고비코리아 누리집(kr.gobiz Korea.com)에서 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 지킨 숨은 영웅 찾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유공자 포상 후보 접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16일까지 2025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추천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 포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관리 등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단체)를 포상, 전기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 위해 매년 진행된다. 작년에는 SK하이닉스 김만섭 부사장이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4월18일 기준 무사고 3276일을 기록하고, 협력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힘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훈장 1건 △산업포장 2건 △대통령포장 4건 △국무총리 표창 6건 △산업부장관 표창 35건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표창 50건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부 상의 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2025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대상자는 △전기안전관리 및 제도 정착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고 예방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감리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향상 및 보급 활성화 △ 전기안전 홍보·계몽·교육 등에 기여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다.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신임 이사장 초청 간담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본부에서 2025년 신임 이사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새로 선출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장선 대한외배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포함한 17명의 신임 이사장과 단체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리더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계의 당면 과제와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책 건의 권한 확대(협의요청권 도입) △주 52시간제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업종별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함께 공유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김기문 회장은 “신임 이사장들은 각 업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중앙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기업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오상근 기자

“알팔과 사일리지, 이제 더 오래 신선하게”

농진청, 저장성 높은 유산균 첨가제 개발

농촌진흥청은 알팔과 담근막이(사일리지) 발효 품질과 저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유산균 첨가제 ‘네빌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케이시시(KCC)-44(이하 케이시시(KCC)-44)’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실용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담근막이(사일리지)는 수확기 강우 등 국내 재배 환경에서 풀사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발효 사료 형태로, 수분을 함유한 풀사료를 공기가 차단된 혐기적 조건에서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산도를 낮추고 저장성을 높이는 저장 방법이다.

알팔과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국산 풀사료다.

하지만, 담근막이로 제조할 때 유산

균 발효에 필요한 수용성 탄수화물이 부족할 경우 잘 발효되지 않아 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분 함량이 높은 조건에서는 산도(pH)가 잘 떨어지지 않아 품질 저하와 저장성 악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콩과 작물인 알팔에 특화된 전용 유산균 첨가제 ‘케이시시(KCC)-44’를 개발했다.

연구진이 5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유산균 처리군에서 무처리군 대비 산도가 5.49에서 4.6으로 낮아졌고, 유산균 수도 증가했다.

이는 부패균이 자라기 어려워 풀사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효모 수는 5.4에서 4.4, 곰팡이 수는 4.9에서 4.6으로 줄어 발효 안정성과 저장성 개선 효과가 뚜렷

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케모스피어(Chemosphere)’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농진청은 유산균 첨가제 ‘케이시시(KCC)-44’ 특허 등록을 마치고 민간업체에 기술이전, 실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한 유산균 첨가제는 담근막이 1분당 2g(105~106 CFU/기준)을 물에 희석해 곤포를 제조할 때 고르게 살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조사토양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이번 유산균 첨가제 개발로 알팔과 담근막이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됐다”며 “알팔과 국내 재배 확대와 사료비 절감, 풀사료 자급률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전 전북본부, 무주 산불피해 주민 위해 지원 나서

기부금 전달 · 노후 전기설비 점검 · 교체 봉사활동 펼쳐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무주군 적상면에 한국전력 전북본부와 무주지사 직원들이 따뜻한 손길을 보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 무주지사장 최종근)는 지난 4일, 무주군 적상면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노후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시행된 봉사활동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응급의료 키트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한 가정내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전기기구 교체 활동을 시행했다.

또한 한국전력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급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전 무주지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을 무주군청에 전달하여 지역사회 상생



에 동참하였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농촌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협은행 전북, 무주 구천초에 ‘NH교실숲’ 선물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아이들을 위한 ‘초록 교실’을 만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8일 구천초등학교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19호를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범석 농협 무주군지부장과 성병헌 구천초등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교실숲 제19호’ 현판식을 갖고, 7학년 45명의 학생들에게 멸종위기 II급식물인 파초일엽과 이레카야자 등 60그루를 전달했다.

‘NH교실숲’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지구살리기 등 실천적 환경 교육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식물을 담은 스미 화분은 버려진 소



재를 업사이클링한 투명페트병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교실숲 조성으로 인해 교내에는 연간 이산화탄소 18kg 및 미세먼지 44g이 흡수되고, 산소 209kg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멸종위기 식물을 양육한 (슈트)리플래닛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학교에 제공한 60그루만큼 또 다른 멸종위기식물 60그루를 양육,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을 이어나간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 익산군산축협, 축산농장에 방취립 조성

전북농협과 익산군산축협이 축산농장의 냄새를 줄이고 깨끗한 농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취립 조성 활동에 나섰다.

농협전북본부와 익산군산축협은 지난 4일 익산시 합리면 합리축산농장에서 깨끗한 축산환경 구현을 위해 임직원 20여명과 함께 황금축박나무, 편백나무 등 100여 그루 묘목을 식재하고 농장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방취립 조성사업은 축산 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조성 및 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 실천을 통해 이웃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전북농협은 매년 축산농장 방취립 조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37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축박나무, 편백나무, 화살나무 등 2천여 그루에 묘목을 공급하여 4월 중순까지 식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재집 조합장은 “농장주변 방취립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